

그리스도의 성체와 성혈 대축일

제 1독서 : 신명 8, 2-3, 14b-16a

제 2독서 : 1고린 10, 16-17

복 음 : 요한 6, 51-58

숲 정 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 있는 빵이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원히 살 것이다”

(요한 6, 51).

강 론

“성체의 신비”

서석구 신부/화산동 천주교회

우리 교회의 가르침 중에는 신비적 사건들이 많다. 예를 들면 예수 탄생 경위부터 부활·승천·삼위일체 그리고 성체성사도 신비 도리 중에 하나이다. 오늘 성서 말씀에 “나는 살아 있는 생명의 빵이다. 내 살과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생을 얻을 것이다.”라고 합니다. 이때 유대인들은 우리가 식인종이란 말인가 하며 서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체성사는 신앙의 눈과 믿음의 확신없이 알아듣기 힘든 도리입니다. 예비자 교리를 마치고 성체성사 도리를 물어봅니다. 그 대답은 신부님의 가르침으로는 믿어야겠는데 이성적으로는 믿기가 어렵다고 말합니다. 이런 대답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설명해야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지 고심합니다. 결국은 인간의 지혜에 의지하기보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최후만찬석상에서 제자들에게 구체적인 모습으로 빵과 포도주 안에 현존해 계실 것을 가르쳐주셨습니다. 이 사건이 미사 때 이루어집니다. 미사는 제사입니다. 제사에는 제관이 있고 제물이 있게 됩니다. 제사가 끝나면 제물을 나누어 먹습니다. 제물을 나누어 먹는 것은 서로의 사랑과 일치완성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바로 성체와 성혈은 ‘성체성사’, 예수님의 몸과 피가 성부께 바쳐지는 십자가의 제물입니다. 미사 때 축성된 성체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성부께 봉헌되셨듯이 성체 안의 그분이 우리 인간에게 봉헌되어 다시 오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체성사는 예수님과 나와의 신비적 일치를 이루며 똑같은 성체를 영하는 다른 형제와도 서로 일치를 이루는 성사입니다. 성체는 미사를 통해서 사제의 축성으로 이루어집니다. 미사는 하늘의 말씀과 주님의 몸과 하나되는 성체성사로 완성됩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행동으로 완성하십니다. 성체성사는 말씀과 행동이 완성을 이루는 사랑과 일치극치를 이루는 신비적 사건입니다. 당신을 음식으로 먹혀주시는 그 사랑과 희생을 인간이 어떻게 헤아릴 수 있을까?

성체 안에 계신 예수여, 우주의 신비, 생명의 신비, 말씀의 신비를 깨닫게 해주시고 성체성사의 신비도 깨달을 수 있도록 은총을 주소서.

소 리

“환경윤리 선언”

산성비가 내리고 상수원이 생화학적 산소요구량 적합 기준을 크게 넘어서는 등 물과 공기가 오염된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종교인들이 나섰다.

천주교·불교·개신교·천도교 등 국내 6개 종단으로 구성된 ‘한국 종교인 평화회의’(회장: 김몽은 신부)가 윤리와 도덕성에 입각한 환경운동 방향을 제시한 환경윤리를 선언한 것이다.

문명의 발달은 인류에게 많은 혜택을 주는 대신 잘가꾸어 보전해야 할 환경을 파괴, 인류 생존의 위기로까지 치닫고 있다.

유엔은 세계 환경의 날까지 정해 행사와 제약을 가하지만 실천적 대안에 그쳐 실효를 거두지 못한 채 환경공해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국내 6개 종단이 89년 3.1절 70주년 기념 민족평화통일 종교인 대회 이후 4년 만에 한자리에 모여 환경윤리를 선언, 환경운동 기본 방향을 설정한 것이다.

종교인들은 환경윤리를 위한 우리의 삶을 물질의 집착에서 벗어나 정신적 풍요를 소중히 여겨야 하고 인간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자연과 조화를 먼저 생각해야 함을 선언했다. 또 우리의 삶은 지역의 한정된 생각에서 벗어나 범세계적이어야 하고 우리 세대만의 생각에서 벗어나 후손의 삶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도시 농촌 할 것 없이 버려진 쓰레기 등 각종 환경공해는 우리가 저지른 부끄러운 것이다. 우리 모두 종교인들의 환경윤리 선언에 동참해야겠다. [문]

숲 정 이 신책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9일 기도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날’은 원래 ‘침묵의 교회를 위한 기도의 날’이었다. 그러니까 28년 전인 1965년에 주교회의는 1949년 5월 이후 점차 목자 없는 침묵의 교회로 변해버린 북한 교회를 공적으로 기억하기 위해 ‘침묵의 교회를 위한 기도의 날’로 정했던 것이다. 그러다가 최근 공산주의의 중중국인 소련의 붕괴와 동서독의 통일, 동구권의 변화, 정부의 북방정책, 민간 차원의 끈질긴 통일운동 등 세계는 체제와 이념을 뛰어넘어 국제화되어가고 있고, 오늘의 남북관계가 분단의 갈등과 대립을 점차 극복해나가는 화해와 협력의 시대를 열어가고 있음을 주목하여 지난 '91년 춘계 주교회의에서 ‘민족의 화해와 일치’라는 표현을 채택 확정했다.

오는 6월25일은 동족 상잔의 비극인 6.25 43주년인 되는 날이다. 그리고 6월20일은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날’이다. 조국의 진정한 평화통일을 위해,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해야겠지만 특별히 6월 한달 동안 주교회의 북한선교위원회에서 제정한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문’을 정성껏 바쳐야겠다. 그리고 어제부터(6월12일) 오는 20일까지 실시하는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9일 기도’에 열심히 참여하도록 하자.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9일 기도’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첫째날(6월12일)
-민족 분단의 죄책에 대해 반성합니다.
- 둘째날(6월13일)
-잡린 용서로 분단의 아픔을 씻어냅니다.
- 셋째날(6월14일)-남과 북의 진정한 화해를 위하여
- 넷째날(6월15일)-갈라진 민족의 일치를 위하여
- 다섯째날(6월16일)-북한 동포를 위하여
- 여섯째날(6월17일)-북한 교회를 위하여
- 일곱째날(6월18일)-북한 선교를 위하여
- 여덟째날(6월19일)-평화통일을 위하여
- 아홉째날(6월20일)-사랑의 완성을 위하여



생각해보면 최근 몇 년 동안 세계 정세의 변화와 정부의 북방정책, 민간 차원의 끈질긴 통일운동은 세계청년학생축전참가, 남북총리회담, 범민족대회, 남북체육회담 등 몇 가지 가시적인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다. 그러나 요즘은 ‘핵’ 문제 때문에 뭔가 잘 풀리지 않는 느낌이다.

지난해('92.1.15-2.20) 북한선교위원회에서 실시한 성직자들의 통일문제 의식 조사를 보면 무력에 의한 통일을 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고, ‘남북한간의 대화와 교류 확산을 통한 통일’(78.8%)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서신 왕래, 가족방문, 성묘 등 이산가족 재회가 제 1순위로 나타났고, 제 2순위는 예술, 체육, 종교 등 문화교류였다. 이외에 북한을 위한 기도 생활에 인색하고, 통일의식은 높지만 적극적 실천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이것은 성직자들의 의식 조사이지만 평화통일을 위해,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답을 주고 있다.

우리 모두 조국의 평화통일을 위해,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해 열심히 기도하고 실천에 옮기자.

<p>플러스 알파 생활용품 할인 백화점 선물용, 행사용, 판촉물, 단체 납품</p> <p>김진태(미지아) 최운희(모니카)</p> <p>코야백화점 ↔ 시청 ☎ 84-5896, 72-8096(차)</p>	<p>청수 종합 오토바이상사</p> <p>대림·효성 전시 판매장 전문 수리점</p> <p>백종술(빠뜨리시오) 이혜숙(가타리나)</p> <p>동양APT 사거리 ↔ 구해성고 사이 ☎ 251-3717</p>	<p>셀프 드라이클리닝</p> <p>양복 5벌을 30분에 값은 7,000원</p> <p>송호신(미키엘) 임춘심(마르타)</p> <p>신일상가 APT ☎ (0653)855-1547</p>	<p>직원 구함</p> <p>남산대리점</p> <p>경리직(여)] 각 1명 일반직(남)</p> <p>김연욱(수산나)</p> <p>☎ 84-1606, 84-5627</p>
--	---	--	--

잡간

성글라라봉쇄수녀원 “자립 축복식”

성프란치스코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대로 살 소명을 하느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같은 소명을 받은 성녀 글라라는 성모님처럼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산 위에서 관상중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 오로지 하느님만을 위해 존재하며 고독중에 침묵하고 기도하며 보속함으로써 복음을 살고 선포하는 특수한 생활양식으로 사부 성프란치스코의 이상을 실재화하였습니다. 이러한 사부모님의 영성에 따라 봉쇄 안에서 거룩한 사랑을 나누며 복음적 가난을 공동체의 삶으로 증거함으로써 성교회의 받침대와 심장이 되어 오늘의 세상에 주님의 은총과 자비를 끌어내리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설립 이념으로 하는 성글라라수도원은 1212년 창설되었고 현재 전세계에 천여 개의 각기 독립된 수도원에 2만여 수도자가 있습니다.

이리 성글라라수도원은 사부 성프란치스코의 탄생 800주년이요 조선교구 설정 150주년을 경축하던 1981년 우리나라에 진출하여 사모 성녀 글라라의 탄생 800주년인 올해 독일 모원에서 분가, 교회법상으로 완전한 독립 수도원으로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이 있기까지 교구 내 유일의 관상 봉쇄 수도원으로 역대 교구장 주교님을 비롯한 사제단과 교구민 여러분께서 큰 관심과 사랑으로 아껴주시고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도움과 기도로 함께 해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중에서도 교구 소유지 해바라기 농장의 일부를 수도원 부지로 내어주시고 상주하시는 신부님에 의하여 그리고 그 이전에도 매일의 미사가 수녀원 성당에서 빠짐없이 봉헌되도록 배려하신 교구청과 이리 익산지역 신부님들의 노고를 가장 큰 고마움으로 항상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제 6월14일에 있을 ‘자립 축복식’으로 수도원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열면서 ‘큰일을 하신’ 주님을 찬송하는 동시에 프란치스코 수도가족의 오누이적 나눔과 이웃 수도회의 협조, 그리고 여러 형제 자매님이 베풀어주신 은혜에 대하여 주님 안에서 깊이 감사드리오며 앞으로도 같은 관심과 사랑으로 지켜 보아주시고 기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구 소식

※엄마들을 위한 영화 상영 : 6월21일(월) 오후3시 교구청 별관 1층, 제목-솔로몬의 딸.

1. 성글라라봉쇄수녀원 자립 축복식 : 6월14일(월) 오후2시 이리 본원.
2. 축! 건진 : 6월18일(금) 오전10시30분 성심학교, 6월20일(일) 오전10시30분 오통동 성당.
3. 천호 피정 안내 : 6월19일-20일 주제-그리스도인의 자세, 강사-전달수 신부, 73-6600.
4. 빛두레 신앙인 학교 : 6월14일(월) 오후7시30분 가톨릭센터 3층 강당, 주제-한국교회의 오늘과 내일, 강사-이순성 신부(광주가톨릭대학).
5. 가톨릭 사진가회 촬영모임 : 6월20일(일) 오전7시 가톨릭센터.
6. 젊은이들을 위한 나눔 묵상회 : 7월3일 오후2시30분-4일 오후5시 수류 성당, 대상-대학생 및 일반 청년, 회비-12,000원, 접수-6월21일~28일(선착순 40명), 문의 84-5290.
7. 성모 승천 전례미사곡 교육 : 6월28일(월) 오전9시30분-오후4시30분 가톨릭센터 3층 강당, 강사-백남용 신부(명동 성당 성음악 감독), 준비-성가책, 필기도구, 회비-7,000원.
8. 교도소후원회 월례미사 : 6월14일(월) 오전10시30분 가톨릭센터 3층 회의실.

※축! 영명 : 13일(성안토니오) 권영균, 양재철 신부님.

자연과 인간의 평화를 위하여

하수구를 깨끗이...

가정의 싱크대 하수구에 일정량의 베이킹소다와 식초를 정기적으로 부으면 하수구가 항상 깨끗하게 됩니다.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이런 세척제를 가까이에 놓고 사용합시다.

지은 피아노 학원

유치부, 국교부, 일반
실기 및 이론 전문 지도
이 정 순(마리아)
인후2단지 정문 앞
☎ 254-5460

효자 쇼파

고급 음접 세트, 가정용,
업소용 제작 및 천갈이 전문
조 종 복(비 오)
효자 테니스장 정문 앞
☎ 223-43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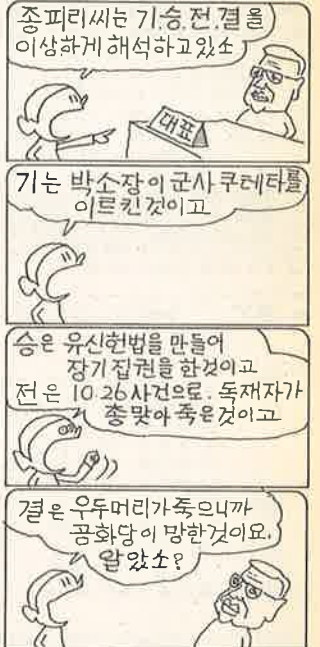
박승근 피부과 의원

진료과목 : 피부과, 비뇨기과
박 승 근(다미아노)
김 종 화(실 비 아)
금암동 태평양 수영장 2층
☎ 253-3858

신선초 녹즙 및 생초 배달 판매

(수녀원 유기농법 재배 직송 공급)
국 정 수(대건 안드레아)
곽 영 미(마 리 아)
군산시 죽성동(청과시장) 수협 맞은편
늘 푸른집 ☎ 446-4316

요심이 (1033) 김병오



우전 바자회 당첨 경품권

- 특등 : 2조 4942
 - 1등 : 각조 7110
 - 2등 : 각조 5012, 7022
 - 3등 : 각조 778, 571
 - 4등 : 각조 64
- 효자우전 성당 ☎ 221-3711

남 사무원 모집

• 자격 : 고졸 이상, 군필자, 운전 면허자, 시내 거주, 컴퓨터 사용 가능한 자
• 구비서류 : 이력서, 최종학교졸업증명서, 호적 등본, 신원증명서 각1통
문의 : (0653)855-2325
창인동 성당

무공해 천연세척 및 삼푸 늘 푸른 집<대리점>

• 샘이랑 : 온몸,삼푸,린스 겸용
• 천연생 : 부역용(아기생,맑은샘)
전 경 자(베로니카)
☎ 86-2050
배배 012-682-6543

☐ 남전주지구 본당소식 ☐

*** 노송동** 본당신부 82-9663 사제관 82-9663 주임신부 박 진 랑
수녀원 82-9662 사무실 82-9661 사목회장 김 동 주

- ◎ 그리스도의 성체와 성혈 대축일
1. "축"세례명 축일: 16일. 여주갑다 수녀님(많은 기도바람) 축하식-오늘, 장엄미사 후.
 2. 반회장 경질: 남노2반-이무철(해라나)→이신화(유리안나) 중노20반-권옥기(안젤라)→나남순(호노라다)
 3. 성심회 단합대회: 17일 9시 출발.
 4. 모임: ①부녀회, 여성연합회(15일, 어머니미사 후) ②재속형제회(19일, 후 2시) ③대건회(20일, 장엄미사 후)
 5. 금주 청소: 동진2반, 남노1반. 차주 청소: 남노2반, 남노3반.
- 지난주 교무금: 843,000원 □ 교무금: 1,124,000원
□ 2차 현금: 384,330원

*** 복자** 사제관 86-3453 사무실 86-3455 주임신부 김 병 환
수녀원 86-3454 사목회장이 상 인

1. 회합: ①요셉회-오늘 공식미사 후 ②꾸리아-오늘 오후 2시 ③청년회-오늘 저녁미사 후 ④해설자 모임-오늘 공식미사 후 ⑤부녀회-17일 오전 10시 ⑥성우회-20일 공식미사 후
- 금주 전례: 해설-유두식, 독서-김현덕 씨 부부
봉헌-김병화 씨 가족
차주 전례: 해설-조옥례, 독서-정승관 씨 부부
봉헌-이창기 씨 가족
- 지난주 봉헌금: 517,460원 □ 교무금: 1,220,100원

*** 상관** 사제관 85-6654 사무실 85-6652 주임신부 한 봉 성
수녀원 85-6653 사목회장 한 동 목

- ◎ 오늘은 그리스도의 성체와 성혈 대축일
1. 모임: ①장년회-19일(토) 저녁미사 후 ②자모회-다음주일
2. 본당 발전을 위한 현금: 다음주일
3.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날: 다음주
4. 감사: 제대꽃 봉헌-꾸리아, 김유스티나 외 도와주신 분들께.
5. 차주 전례: 해설-이옥동, 독서①남현준 ②이춘봉
봉헌-김한철 씨 부부
- 지난주 교무금: 292,300원 □ 교무금: 328,000원

*** 서학동** 사제관 84-8307 사무실 86-4929 주임신부 이 중 원
수녀원 84-2276 사목회장 김 명 웅

- ◎ 그리스도의 성체와 성혈 대축일!
1. 재속 프란치스코 3회: 6월13일(오늘) 오후 2시
 2. 성심회: 6월15일(화) 오후 2시.
 3. 울뜨레아: 6월16일(수) 오후 7시30분.
 4. 성모회: 6월20일(다음주일) 공식미사 후.
 5. 민족화해와 일치를 위해 9일기도를...

*** 용머리** 사제관 88-3872 사무실 87-0441 주임신부 현 유 복
수녀원 81-0441 사목회장 오 직 환

- ※ 그리스도 성체와 성혈 대축일.
1. 학생 예비자반: 모집합니다. 관심가지고 인도바랍니다.
 2. 축! 영명: 13일→성안토니오, 15일: 크리스티아, 아델라이다 19일→로부알도
 3. 성가대원을 찾습니다.
 4. 청소 봉사: 1구역 전부.
- 지난주 봉헌금: 663,200원 □ 교무금: 1,419,000원

*** 전통** 사제관 본당 81-0098 보좌 82-7245 주임신부 김 불 회
사무실 84-3222 수녀원 82-9234 보좌신부 정 성 만
유치원 84-8347 FAX 82-6232 사목회장이 영 태

- ◎ 그리스도의 성체와 성혈 대축일.
1. 금주: ①자모회(전 10시) ②일치의 모후 꾸리아(후 2시) ③사모회(후 8시)
 2. 성모회: 15일(화) 오전 11시.
 3. 영화 상영: "빵과 포도주의 마르첼리노" 16일(수) 저녁미사 후
 4. 구역반장 회의: 17일(목) 오전 11시.
 5. 빼에따회: 19일(토) 오전 10시.
 6. 차주: 바나의 성모 꾸리아(후 2시)
 7. 예비자 교리시간 안내: ①일요일 오전 9시-일반 ②화요일 오후 3시-젊은 어머니 ③화요일 저녁 8시-젊은이 ④수요일 오후 8시-노인 ⑤목요일 저녁 8시-직장인 ⑥토요일 오후 4시-중·고생
- 지난주 봉헌금: 1,843,550원

*** 평화동** 사제관 85-6979 사무실 83-8245 주임신부 이 재 후
FAX 82-6686 수녀원 87-0229 사목회장 강 상 근

- ※ 축! 세례 48명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미사 후 축하식.
1. 참부모가 되는 길: 20일 전9시30분~후4시, 회비-3천원.
 2. 예수성심의 밤: 18일 저녁7시30분 성심계 드리는 글 준비.
 3. 국악성가 개창연습: 미사 15분 전 국악 성가채 구입.
 4. 교도소후원회 월례미사: 14일 전10시30분 센터 3층.
 5. 천상은총의 어머니Pr 100차 성지순례: 15일 9시출발 나바위.
 6. 계약의 케Pr 100차 성지순례: 17일 10시 출발 천호.
 7. 회의: 성모회-16일 어머니미사 후, 성소후원회-16일 어머니미사 후, 청년회-다음주일 저녁미사 후.
 8. 본인자 성지순례: 27일 전9시출발, 천호, 회비-5,000원
 9. 본당청소: Pr별로 차례를 잡지켜 깨끗한 본당을 가꾸십시오.
- 지난주 봉헌금: 1,286,820원 □ 교무금: 1,218,000원

*** 화산동** 사제관 221-9843 주임신부 서 석 구
사무실 221-9842 사목회장 한 병 갑

1. 성모회·자모회: 오늘 미사 후.
 2. 반모임: 15일(화) 오전-성원, 오후-운남, 저녁-삼정1,3, 16일(수) 오전-화산1, 오후-신일, 17일(목) 오전-거성그린1, 오후-거성그린2.
 3. 울뜨레아: 다음주일 미사 후.
 4. 영세식: 다음주일 미사중.
 5. 수녀원·회합실 에어콘을 위한 모금 및 납부에 협조를 바랍니다.
- 금주 전례: 강희연, 독서·봉헌: 정원정, 김의식
차주 전례: 장병순, 독서·봉헌: 임영미, 성호철

*** 효자동** 본당 223-3824 사무실 223-3821 주임신부 김 치 삼
보좌 223-3823 수녀원 223-3822 보좌신부 장 상 호
FAX 223-3821 사목회장이 동 섭

- ◎ 오늘은 그리스도의 성체와 성혈 대축일입니다(우전본당을 위한 2차 현금) 지난주 봉헌금: 1,400,910원 □ 교무금: 2,283,000
1. 성구회: 본당 친선 테니스대회(오늘 오후 2시-혜성고 테니스장) 2. 울뜨레아: 오늘 저녁미사 후 교육관에서 있습니다.
 3. 휴가중인 본당 신부님을 위해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4. 유기농장: 10명 1구좌에 심판원입니다. 신대인 등박 공소에서 유기농법으로 죽어있는 먹거리에서 생명의 먹거리를 제공합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사무실에 접수하십시오) 5. 효자원보 원고를 모집합니다. 문학적이 아니더라도 좋습니다.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 기억하고 싶은 신앙적·일반적 모든 것을 원합니다. 6. 미사 안내: 금주-자비의 모후, 성마리아, 차주-가난한이, 사랑하옵.

*** 효자우전** 사제관 221-3712 사무실 221-3711 주임신부 김 순 태
수녀원 223-0715 사목회장 엄 악 도

1. 모임 안내: ①꾸리아-오늘 공식미사 후 ②빈첸시오회-14일(월) 오전 10시 ③제대회-18일(금) 10시미사 후
 2. 감사!: 바자회에 수고하신 진심자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차주 모임: 성전건축위원회, 반회장 준비 모임
금주 전례: 해설-이한은, 독서①소철영 ②강명선
봉헌 안내-문명식 부부, 김갑수 부부
차주 전례: 해설-이인숙, 독서①이준영 ②손선희
봉헌 안내-강인성 부부, 김일수 부부
- 지난주 봉헌금: 809,670원 □ 교무금: 694,000원